

손명수 차관, “한·미 항공보안 연대·협력 강화를”

- 9일 한·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서 승객 편의향상 위한 협력 강화 제안 -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12월 9일(수), 데이비드 페코스케 (David Pekoske) 미국 교통보안청 청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양국 간 항공보안 강화 및 중복규제 해소와 더불어, 글로벌 항공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.
- 우리나라는 미국과 2010년부터 항공보안 수준 향상 논의를 위한 협력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,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-미 간 굳건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.
- 손 차관은 한국의 철저한 보안체계를 강조하면서, “미국행 승객 편의 향상을 위한 중복규제 해소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”고 제안하면서,
 - “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아태지역 기여활동 등을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 모델이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이에 미국의 페코스케 청장은 한국의 항공보안을 높이 평가하고, “양국이 추진 중인 협력사업이 조만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”면서, “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글로벌 항공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”고 뜻을 같이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9차 한-미 항공보안 협력회의(영상)를 갖고 미국행 추가검색 면제, 한-미 합동 아태지역 불시평가 워크숍 및 항공기내 보안요원 전문교육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, 공항 불법드론 대응 및 생체인식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2020. 12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